

# 광주 대표 '게미맛집' 도전하세요

광주시, 10월10일까지 접수  
1차 메뉴 특성·2차 암행 검증  
선정 뎀 컨설팅·홍보 지원

광주시가 맛의 고장 광주를 대표할 수 있는 맛이 뛰어난 음식점을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대표 맛집으로 육성한다. 선정된 맛집의 명칭은 '게미맛집'으로 할 예정이다.

'게미'는 씹을수록 고소한 맛, 또는 그 음식 속에 녹아있는 독특한 맛이란 뜻의 전라도 방언이다.

광주시는 17일 "광주는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맛의 고장으로 불리면서도 지역

을 대표할 만한 음식점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적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어 재미 맛집 선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광주시 내에 개업 중인 음식점 영업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광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받은 음식점, 광고일 기준 1년 이내 식재료 원산지 허위표시로 형사 고발 또는 입건된 음식점,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본점을 둔 가맹점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잠재력이 뛰어난 소수 업소를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는 전략에 따라 자치구별 1개소 정도 약 5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방법은 영업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된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광주

게미맛집' 심사위원 9명이 1차로 메뉴의 독특성 및 경쟁력 등을 평가한 후 20개 내외로 압축하고, 2차 암행 맛 테스트 및 사업전략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광주 게미맛집'에 선정되면 대표 맛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음식 컨설팅과 홍보를 무료로 지원하고 재미맛집 지정서와 표지판 부착, 식단 환경 개선 등 음식점 명소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들을 집중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계획서 등 최소한의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방문, 우편, 전자메일 방법 중에서 선택해 10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벌써 7번째... 풍영정천 오염사고 골머리

광주시, 방제·사고원인 파악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면서 민·관이 협력해 '풍영정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등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교 하류 약 100m 지점인 풍영정천으로 유입되는 월곡 6배수문에서 거품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시는 수질오염사고 매뉴얼에 따라 광산구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상황을 전파한 뒤 현장확인하고 사고원인 파악에 나섰다.

시는 또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한 뒤 거품으로 인한 수중 용존산소 감소를 막기 위해 소방용수 20t을 뿌리는 등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시가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에 대해 발빠르게 대처하면서 물고기 집단폐사 등 2차 피해를 막은 셈이다.

시는 그간 사고 대응 매뉴얼 제작 및 수질오염사고 방제 훈련, 하천예찰 활동과 환경오염물질배출소 점검 등 풍영정천

살리기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질오염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는 올 들어서만 모두 7차례에 이른다. 지난 3월엔 기름유출 사고가, 지난 4월엔 거품이 일어나는 사고가 각각 발생했다. 이 같이 풍영정천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면서 이를 막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김석준 광주시 생태수질과장은 "깨끗한 풍영정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하천예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시민과 기업들의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폐수 무단 방류 업체 적발 면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 형사처분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영기자 young@



## 북구 주민들, 광주~송정역 셔틀열차 체험

"셔틀열차를 한 번 타보니 편한 걸 진짜 알겠어요." "앞으로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열차요금에 인하되면 좋겠네요."

광주시가 북구청, 코레일 광주본부와 함께 광주역~광주송정역 간 셔틀열차 편의성 홍보를 위해 지난 15일 '셔틀열차 탑

승 체험'을 마련했다. <사진> 이날 체험에는 유관기관 관계자와 북구 27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통장, 새마을부녀회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시는 셔틀열차를 이용하면 광주역에서 광주송정역까지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

어 편리하고, 비용면에서도 택시를 이용했을 때보다 1만원 정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체험행사를 마련했다.

2016년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셔틀열차는 하루 30회(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운임은 어른기준으로 2600원이다. KTX 환승 시 900원까지 할인된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사회 약자 위한 '인권경찰' 될 것"

배용주 광주경찰청장 인터뷰

배용주(54·치안감) 광주지방경찰청장은 '광주 토박이'다.

지난 1963년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에서 태어난 배 청장은 송정초등학교와 정광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대학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과 경찰대학교를 동시 합격했는데, 고민 끝에 경찰대를 선택했다.



경찰대 2기인 배 청장은 경찰 조직에서 대표적 수사·형사통이다.

지난 2010년 서울성북경찰서장 시절,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40대 여약사 납치 살인사건'을 타지역 경찰서와 협업 및 치밀한 과학·탐문수사로 일주일 만에 해결한 사례는 '경찰 수사의 살아있는 현장 교본'으로 통한다.

배 청장은 "우리 관할도 아닌 사건을 왜 나서야 하느냐는 일부 직원을 다독이고, 관할이 다른 타 경찰서 등과 함께 받았던 수사에 매달려 사건초기 윤곽 조차 없었던 범인을 검거하고 나니 보람도 두배가 되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배 청장은 이처럼 사건해결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지만, 평소엔 직원들과 격의 없는 대화와 소통을 즐겨한다.

탈권위 '소통 리더십' 강점  
고향 광주에서 근무 설레  
스쿨존 단속·안전 교육 강화  
여성·청소년 등 보호 주력

특히 배 청장은 후배 경찰들 사이에서 '탈권위의 아이콘'이란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부드러운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

-광주청장을 맡은 느낌이 남다른 것 같다.

-벌써 취임한 지 두달 여가 다 됐다. 역사의 굴곡마다 불의에 항거해온 민주와 정의의 도시인 광주에서 근무하게 돼 영광이다. 특히 광주는 제 고향이자 학창시절을 보낸 곳이다. 치안 책임자로 봉사하게 돼 실례와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광주치안 중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주민을 위한 경찰, 정의로운 경찰, 깨끗한 인권경찰"을 신념으로 삼고 있다. 특히 힘이 없고 억울한 시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경찰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힘들게 얻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경제사범 수사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시대적 화두인 '인권보호'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사고가 크게 늘었다. 대책은.

▲취임 후 광주의 사건·사고 현황 등을 살펴보니, 5대 강력범죄는 줄어든 반면 교통사망사고와 가정폭력, 그리고 보험범죄 등이 늘었다.

교통사망사고 증가는 경찰력이 출·퇴근길 관리, 음주단속 등에 치중한 점이 한 원인으로 파악돼 교통사고 예방 업무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로 잡았다. 다행히 취임 후엔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

특히 앞으로는 올 들어 4건이나 발생한 어린이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스쿨존 내 교통위반행위 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통 예방 교육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에 체험형교통 교육기관이 몇 곳 있던데, 교통전문 경찰관을 직접 지원하고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안전교육에 힘을 보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추진중인데, 성과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여성폭력 근절 기간으로 정했다. 벌써 불법촬영 성범죄자를 20명이나 붙잡았고, 데이타임 폭력 사범 82명과 청소년 성매매 사범도 25명을 검거했다. 추석명절을 대비해서는 가정폭력 위기가정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중이며, 가정폭력 사범에 대한 선법할 방침이다.

-인사(人事) 원칙은.

▲앞으로 인사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직원들이 공감하는 인사를 하겠다. 직원들 스스로 누가 승진해야 할 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공적인 생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겠다. 인사철만 되면 '보여주기식' 성과에 몰입하고, 과도한 욕심을 내는 직원은 철저히 배제하겠다. 또 인사 후 조직내에서 '저런 직원도 승진했네'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경찰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태산명동서일발(泰山鳴動鼠一匹)'. 태산이 큰 소리를 내며 흔들렸는데 겨우 쥐 한 마리가 나왔다는 고사성어다.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경우를 꼬집는 말이다. 경찰업무도 마찬가지다. 모든 업무가 주민의 안전, 생명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시작만 거창하고, 결과는 흐지부지되면 안 된다. '주민 안전', '인권 경찰' 등 최우선 목표로 정한 만큼, 직원들 모두가 정성을 다해 기본적이고 꼭 필요한 치안활동을 펼치는 데 힘을 모아줬으면 한다.

/사진=나명주기자 mjna@

## 북구, 전국자치박람회 16년 연속 본선

광주시 북구가 16년 연속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본선에 참가한다.

17일 북구는 "행정자치부와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주관하는 제16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분야별 우수사례 공모에 4개 사례가 선정돼 홍보 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전국 380여개 사례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64개 사례가 최종 현장심사를 앞두고 열띤 경쟁을 치르게 된다.

북구는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등 2개 분야에서 총 4개 사례가 선정됐으며, 참여와 소통, 공감을 바탕으로 주민이 직

접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자치 분야에서는 임동의 '함께 그리는 임동 이야기?생! 생!', 건국동의 '건국동 마을기억저장소 : 기억이 공동체다!'가, 지역활성화 분야에서는 매곡동의 '같이 보고 함께 가는 시골백적!-매곡골 주민공동체', 삼각동의 '바람개비는 혼자 돌지 않는다! 바람개비꿈 삼각동'이 각각 선정됐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無덤

무덤이 필요 없는 자연장

봄 햇살처럼 아낌없이 베풀었던 당신은  
봉안시설과 무덤보다는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이곳이 더 어울립니다.

후손에게 선물을, 이제는 자연장·수목장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46-8(2층)  
☎ (062) 433-9191

NAVER 광주전남수목장 검색